



밴쿠버 성 김대건 성당 (St. Andrew Kim Parish)

구역 소공동체 기도회 교재

한 망

10222 161St. Surrey, B.C V4N 2J8 전화: 604-588-5831

www.standrewkim.com

2019년

5 월호

< 소공동체 기도회 진행 순서 >

1. 시작 성가 (구역, 소공동체에서 선정)
2. 인사 나누기
3. 시작 기도 (소공동체 모임 기도)
4. 복음 나누기

< 복음 나누기 7 단계 >

“지금부터 복음나누기 7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주님을 초대한다.
- (2) 성경 본문을 읽는다.
 - + 4월 28일~5월4일 : 요한 20.19 - 31
 - + 5월 5일~11일 : 요한 21.1 - 19
 - + 5월12일~18일 : 요한 10.27 - 30
 - + 5월19일~27일 : 요한 13.31 - 33
 - + 5월26일~31일 : 요한 14.23 - 29
 -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 (3) 마음에 닿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한다.
 - 큰소리로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는다.
 -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다.
- (4) 침묵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5)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눈다.
 - 자료 읽기
- (6)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해 토의한다.
 - 지난 번 모임에서 결정한 활동을 보고한다.
 - 이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엇을, 누가, 언제 할 것인가?)
 - 생활 말씀 나누기와 정하기
 - 본당 소식을 전달한다.(선교장)
 - 기타 사항, 질의 응답, 건의 사항
 - 출석 점검, 다음 모임 일시 및 장소 정하기.
- (7) 자발적으로 기도한다. (자유기도)
 - 복음 나누기 7단계 자체 평가지

< 소공동체 모임 기도 >



+ 주님 !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 하셨사오니
당신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 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 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 당 소 식

♣ **【성모의 밤】** : 5 월 1 일(수) 7:30pm

♣ **【어버이 날】 행사 초대** : 5 월 12 일(일) 10:30am 미사 후- 친교실(70 세 이상 시니어)

♣ **【본당 한맘 청소의 날】** - 우리 모두 함께 본당을 가꾸는 날!!!

- 5 월 11 일(토) 10:00am ~4:00pm

- 우리 모두 함께 나의 성전을 청소합니다.

- 준비물 : 고무장갑, 현수건, 빗자루, 먼지떨이, 작은 물통 등

♣ **【전신자 성경읽기 고리운동】**

성경고리읽기는 본당 교우 모두가 성경을 함께 읽음으로써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영성을 북돋우며 친교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모두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리 읽기』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상황판을 친교실에 게시하였습니다. 각 팀원 중 누구든 친교실 상황판에 진도를 표시합니다. - 4 월 19 일(금) 현재 88 개팀, 803 명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경 고리 읽기』의 좋은 사례나 소감문(1/4 면)을 주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제출바랍니다.

♣ **【서부 캐나다 남성 제 4 차 꾸르실료 주말 참가자모집】**

- 임원, 구역, 단체 등의 봉사자 양성 교육입니다. 적극 추천 바랍니다.

일시 : 5 월 23 일(목) ~ 26 일(일) 3 박 4 일 장소 : Charis Camp & Conference Centre

참가비 : \$350 (신청비 \$50 포함) 문의 : 이명자 카타리나 ☎ (604) 525 - 0619

♣ **【The Door is Open 봉사자 모집】** - Homeless People 급식 봉사-

매주 월, 화, 목, 금 : 8:30am ~ 12:00pm 문의 : 송기형 요셉 ☎ (604)916 - 1018

-

구 역 소 식

▶ 구역 음식 세일 일정

월별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제 5 주
5	미 정	어버이날 행사	첫영성체	성삼위(Tri-City)	XXX
6	은총축제	New westminster	미 정	랭리/Walnut grove 1회	미정

▶ 미사 예물 봉헌 일정표

월별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제 5 주
5	랭리/Walnutgrove 1소공동체	2소공동체	3소공동체	4소공동체	XXX
6	Fleetwood-Cloverdale 1소공동체	2소공동체	3소공동체	Guildford 1구역 1소공동체	2소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연재5)

소공동체 원리와 방향, 운영과 실천

소공동체와 구역·반 모임

64. 한국 교회에는 이미 소공동체가 도입되기 전부터 구역·반 모임이 있었고, 여기에 소공동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구역장·반장을 선출하고 소공동체 봉사자를 양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공동체와 구역·반 모임은 명칭으로 볼 때 행정적 의미가 강한 조직 개념이지 공동체 개념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당에서 행정적으로 구분하는 구역·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이 곧 소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이 가끔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소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이해부터 혼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65. ‘소공동체’ 라는 용어는 앞서 소공동체의 영성적 의미에서 본 것처럼 교회의 구체적인 어떤 ‘사목적 본보기’ 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상을 지향하며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사목 전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반 모임이 소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은 그 운영 방법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본당에서 신자들에게만 한정하여 구역·반 모임을 행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운영한다면 소공동체라기보다 본당의 하부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구역·반 모임에 소공동체가 지향하는 정신을 붙여넣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소공동체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본당의 구역·반 모임은 한국 교회의 ‘기초’ 가 되는 공동체로서 한국적인 소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 가 될 수 있습니다.
66. 사실 한국 교회의 구역·반은 행정적인 편리성 때문에 조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직은 한국 교회 고유의 소공동체 본보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역·반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 때문에 행정적인 조직으로 이해되는 것을 피하려면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역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공동체 표현인 ‘두레’ 또는 ‘마을’ 등으로 부를 수 있고, 사도들이나 성인들 이름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7. 소공동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데 또 다른 문제는 본당에서 ‘구역 모임’ 이 소공동체인가, ‘반 모임’ 이 소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뒷장에서 교회론에 따른 신학적 원리와 소공동체 운영에서 좀 더 분명하게 다루겠지만 소공동체를 특정한 숫자로 한정하는 것보다 소공동체가 지향하는 정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곧 **평신도들의 자발성이 드러나고 소외된 이가 없이 서로 친밀감을 느끼며 모두 공동체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모임이면 소공동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본당에서 소공동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모임’ 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자발적 참여, 친교가 일어나는 구역 규모의 신자들의 모임과 활동도 소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장애 (조 당)에 대한 설명

혼인 장애, 해결할 수 있어요.

혼인장애(조당)는 가톨릭 혼인의 특징(단일성과 불가소성)에 위배되는 요인, 또 교회에서 정한 유효한 혼인(성사혼 또는 관면혼)의 요건을 채우지 못할 때에 발생합니다. 혼인장애의 상태가 되면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고 영성체를 할 수 없는 등 신앙생활에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닙니다. 혼인장애를 푸는 방법으로 바오로 특전, 베드로 특전, 관면혼 등이 있으므로 본당의 신부님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장애의 몇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1. 천주교 신자 K 씨와 비신자 E 씨는 결혼(사회혼)하였습니다.
: K 씨는 교회법이 정한 혼인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형식 장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체, 고백성사, 등의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면혼을 받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2. K 씨는 E 씨와 이혼을 합니다. 지인이 천주교 신자가 이혼을 하면 조당(혼인장애)에 걸려서 성사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 **아닙니다.** 이혼을 한 사실만으로는 조당에 걸리지 않습니다.
3. K 씨는 이혼 후 P 씨와 재혼을 합니다.
: 이 경우 K 씨는 **조당(혼인장애)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체, 고백성사 등의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K 씨는 현재의 결혼이 유효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법원에 이전에 했던 E 씨와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혼인무효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아 이전의 혼인에 대해 무효가 인정되면, P 씨와의 혼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P 씨가 천주교 신자라면 혼배미사를 하고, 비신자라면 관면혼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4. 비신자 A 씨와 비신자 Y 씨는 결혼하여 살다가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A 씨는 혼자 살다가 비신자 L 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A 씨는 성당에서 **예비자 교리를 받으며 세례를 준비중**입니다.
: A 씨는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신자가 될 것이기에 **혼인 장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로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바오로 특전'을 확대 적용하여 해소를 할 수 있으므로 신부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혼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여 숨기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 제출한 서류 중에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실을 알리고 면담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관면혼을 해서 혼인장애를 풀었어요. 제 경우는 위의 1 번 사례였던 거 같아요. 남편은 신자, 저는 비신자 상태로 결혼을 했고, 남편이 조당 상태였습니다. 제가 예비자 교리를 받으면서 남편이 조당인 상태를 풀기 위해 관면혼을 받아서 현재는 혼인장애가 아니게 되었어요.”

이혼과 재혼이 급증하면서 혼인장애에 걸려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천주교 신자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의 사례 이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면담 신청은 본당 사무실 이메일(제목: 혼배 면담)로 하시기 바랍니다. vansungdang@hotmail.com